

2019년



과테말라 과테말라시티 출장자료

【 목 차 】

I. 과테말라 국가개황	1
II. 과테말라 경제 및 교역동향	5
III. 한국과의 교역동향	9
IV. 현지 체류정보	12
V. 상담시 참고사항	23





I. 과테말라 국가개황

국 가 명	과테말라공화국(República de Guatemala)
위 치	중미북부(북쪽으로는 멕시코, 남쪽으로는 엘살바도르와 접경)
면 적	108,889km ² (내수면 460km ² 포함) * 남한(100,295km ²)과 거의 유사
기 후	아열대성(수도 과테말라시티의 경우 1,500m 고산지대로 연평균 20~22℃의 상춘 기후 형성)
수 도	과테말라시티(Ciudad de Guatemala)
인 구	1,724만명 ('18년)
주요도시 (인 구)	과테말라시티(99만명, 수도권 326만명), 비야누에바(59만), 믹스코(50만), 꼬반(28만), 계찰떼낭고(15만), 에스킨틀라(15만) 등
민 족	백인(5%), 라디노(혼혈 40%), 인디오(50%), 기타(5%)
언 어	스페인어(기타 약 23개의 토착언어 존재)
종 교	가톨릭(70%), 기독교(30%), 기타 토착종교 등
건 국 일	1821년 9월 15일(스페인으로부터 독립)
정부형태	대통령중심제
국가원수	Jimmy Morales (본명 : James Ernesto Morales Cabrera) * '20.1.14 알레한드로 지아마테이 신임 대통령취임예정
명목 GDP	788억US\$('18년)
실질경제 성장률	3.15%('18년)
1인당GDP	4,567US\$('18년)
실 업 율	2.7%('18년) * Worldbank '19.8월 조회기준
물가지수	3.75%('18년 소비자물가지수 CPI 기준)
화폐단위	Quetzal(Q/계찰)
환 율	1US\$ = 7.67193Q.('19.8.23 과테말라중앙은행 기준환율)
외환보유고	123억US\$('18년)
산업구조	도소매업(25.9%), 제조업(17.9%), 민간서비스업(12.6%), 농림수산업(10%), 통신운수업(7%), 부동산임대업(6.7%) 순
교역규모	(수출) 107.6억US\$ / (수입) 196.9억US\$ ('18년)
대 한 교역규모 (KITA기준)	(한->과테말라) 237백만US\$('18년, FOB기준) * 주요품목 : 자동차, 편직물, 석유화학제품, 철강 등 (과테말라->한) 67백만US\$('18년, CIF기준) * 주요품목 : 연광, 커피, 바나나, 에탄올, 아연광, 당밀, 고철스크랩 등

* 출처 : IHS MARKIT('19.8 조회 기준)



☐ 과테말라 전도(全圖)



1992 MAGELLAN Geographics/SMSanta Barbara, CA (800) 929-4627



□ 과테말라 주요 현안

- '20.1.14 신임대통령 알레한드로 지아마테이 취임 예정
 - '19.8.11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 결과 VAMOS당(중도 보수) 알레한드로 지아마테이(Alejandro Giammattei, 13.89%)가 UNE당(중도 진보) 산드라 토레스(Sandra Torres, 25.73%)를 제치고 대통령에 당선
 - 알레한드로 지아마테이(남, 64세)는 외과의 출신으로 과테말라시 대중교통국장, 상수도 국장 등을 역임했음. '04-08년 간 교정본부장 재직 당시 수감자 고문 및 살인 연루 혐의로 2010년 구속되었다 사면된 바 있음
 - 지아마테이 당선자는 '개혁과 발전을 위한 국가계획'을 통해 주요 분야 공약을 발표한 바 있음.
 - . 경제: 수출, 중소기업강화와 관광 진흥 도모, 경제발전을 위한 인프라 개선
 - . 사회: 건강보험, 개별근로자의 IGSS(사회보장보험) 가입, 주택보조
 - . 치안: 경찰 및 군 대처 능력 강화, 육해공 통신장비 및 무기 현대화
 - 국내외의 과테말라 전문가들은 신정부에서 '안전한 3국'과 같은 미국과의 이민자 문제 해결, 일자리 확보 및 치안 강화 등을 통한 이민자 유출 대응, 법치 국가 확립 및 비리척결 등을 주요 현안 사항으로 꼽고 있음

- 중미 6개국, 단일세관신고서(DUCA) 상용화 시작
 - 중미 6개국(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는 SICA 창설 이래 SIECA를 중심으로 경제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는 역내 생산 재화에 대해서는 자유 이동을 허용하는 자유무역지대 수준이며 앞으로는 관세동맹을 거쳐 통합 경제를 구축하고자 함
 - '19.5.7부터는 자유무역지대에서 재화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기존 수기로 각 국가 별로 개별적으로 작성하던 3종의 세관수출신고서를 DUCA라는 이름으로 통합하고 각 국가의 세관 분야 시스템을 SIECA에서 개발한 DUCA 플랫폼에 연결하는 식으로 시스템 운영
 - 과테말라와 온두라스의 경우, 관세동맹을 맺고 DUCA보다 진전된, 국내 세금(부가세 혹은 판매세) 납부 기능이 포함된 FyDUCA를 사용하고 있음. 향후 관세동맹 참가 국가들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 과테말라 미국과 ‘안전한 제 3국’ 협정 서명

- 과테말라는 ‘19.7.26 미국과 ‘안전한 제 3국’ 협정에 서명. 이에 따라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 이민자들은 미국 대신 첫 경유지인 과테말라에 망명 신청을 하게 됨.
- 미국은 중미 국가들이 해마다 급증하는 이민자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원조를 중단하는 등 중미 이민자 유입을 막기 위해 여러 조치를 고려해왔음
- 지미 모랄레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안전한 제 3국’ 협정을 체결하려 했으나 7.15 과테말라 헌법재판소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며 협정 체결에 제동을 걸었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과테말라가 협정을 파기했다고 맹비난 하며 대미 수출관세 부가, 외화 송금 수수료 부가, 과테말라 국민의 미국 여행 금지 등 다른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 결국 과테말라는 협정에 서명
- 현재 미국에는 약 120만 명의 과테말라 이민자들이 거주 중이며 이들이 본국에 송금하는 금액은 해마다 증가 추세로 2018년의 경우, 93억 달러가 송금되었으며 이는 과테말라 GDP의 11%, 시간당 백만 달러, 하루 2,500만 달러에 해당

○ 한-중미 FTA 발효 예정

- ‘19.8.2 한국 국회에서 한-중미 FTA 가입이 비준되면서 ‘19.10.1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코스타리카에서 FTA 발효 될 예정
- 과테말라는 한-중미 FTA 협상 당시 15개 관세조항에 대해 국내 산업계와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며 FTA 협상에서 빠지게 되었고, 향후 한-중미 FTA가 전체 국가에서 발효된 이후 추가 참여에 대해 재협상을 진행하기로 함



II. 과테말라 경제 및 교역동향

□ 시장특성 및 경제동향

- (교역환경) 중미시장 진출 교두보이자 역내 최대 소비시장
 - 역내 최대 경제규모를 갖추고 있어 중미시장의 관문이자 테스트마켓
 - * 과테말라, 중미 전체 GDP의 28%, 총 수입액의 25% 차지
 - 한-중미 FTA 발효 시 틈새시장으로서의 가치 재조명 기대)
 - 평균 관세율 2.7%의 높은 무역개방도를 갖춘 개방 시장
 - * 중미공동시장(CACM) 회원국(5개국) 간 역내 원산지제품 무관세 교역 시행

- (사회환경) 치안불안, 대미의존, 빈곤 등 사회적 불안정성 내포
 - 극도의 치안 불안이 기업 활동 및 경쟁력 저하의 주요인
 - * 인근국(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모두 세계 최상위권 피살율 기록
 - 교역 및 외환 유입의 상당부분을 미국에 의존하는 경제구조 고착화
 - * '18년 대미의존도 수출(35.7%)//수입(37.9%), '18년 美거주자 가족송금액 GDP비중(11.8%)
 - 빈곤, 재정부족으로 정부주도 또는 개발협력력을 통한 경제성장 모멘텀 절실
 - * 정부조달 수요 및 개발협력분야 의제 발굴, 지원 수요 다대

- (투자환경) 정부·산업계의 수출·임가공업 경공업 진흥정책 지속
 - 봉제업(임가공) 및 플라스틱 제조업이 주력업종이며, 미국·인근시장의 생산기지 기능 수행
 - * 계속된 인건비 상승,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투자진출 매력도 점차 상실
 - 브라질(5만), 아르헨(2만), 멕시코(1만), 파라과이(5천)에 이은 중남미 5대 교포경제 형성
 - * 한국계 봉제업체가 과테말라 봉제업계의 54%, 생산/수출액의 70% 차지
 - 면세혜택 소멸,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봉제업 경쟁력 소실이 최대 현안
 - * 마길라법(28-89) 대체법안 국회통과(긴급고용법 19-2016, '16.3.30), 긴급고용법 시행령 (대통령령 3-2017) 발표('17.1.6)



□ 과테말라 교역동향

- 과테말라 교역액은 수출입 모두 '14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섰으나, '17년 들어 다시 8%대의 증가세를 보이며 회복. '18년에는 주요 수출 품목(원당, 커피 등)의 단가 하락으로 수출액이 소폭 감소하였으나 수입의 경우 꾸준히 증가

<최근 3년간 과테말라의 수출입동향>

구 분	2017	2018	2019.5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수 출(백만U\$)	10,993	10,769	4,710	0.42
수 입(백만U\$)	18,388	19,699	8,169	2.08
교역수지(백만U\$)	-7,395	-8,930	-3,459	4.43

* 출처 : 과테말라통계청(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 '19.8 확인)

- 2018년 기준, 국별로는 지리적으로 근접한 미국(38%), 중국(10.95%), 멕시코(10.83%) 등 3개국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이 가장 크고, 이어 중미공동시장(CACM) 회원국(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도 14% 차지 - 중국은 '17년부터 멕시코를 제치고 과테말라의 제 2위 수입대상국으로 부상
- 인접한 FTA체결국(미국, 멕시코 등), 중미 등 특별한 관계에 있는 역내국들을 제외하고는 중국, 일본, 독일, 한국 등 제조 강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많은 편이나, 대한 수입은 근래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최근 3년간 과테말라의 국별 수입규모>

순위	국 가	년도별 수입액(백만U\$)			비중(%)			증감률(19/18,%)
		2017	2018	2019.5	2017	2018	2019.5	
1	미국	6,998	7,466	3,052	38.06	37.90	37.35	-1.84
2	중국	2,333	2,157	995	12.69	10.95	12.18	19.06
3	멕시코	1,968	2,134	900	10.70	10.83	11.01	5.29
4	엘살바도르	875	1,025	390	4.76	5.20	4.77	-6.10
5	코스타리카	567	658	251	3.08	3.34	3.07	-8.82
6	콜롬비아	393	528	217	2.14	2.68	2.66	10.40
7	파나마	393	587	210	2.14	2.98	2.57	-6.97
8	온두라스	330	414	180	1.79	2.10	2.20	4.02
9	인도	309	316	139	1.68	1.61	1.71	13.75



순위	국 가	년도별 수입액(백만U\$)			비중(%)			증감률 (19/18,%)
		2017	2018	2019.5	2017	2018	2019.5	
10	독일	364	276	134	1.98	1.40	1.65	36.38
13	대한민국	306	291	120	1.67	1.48	1.46	-4.85
총계		18,388	19,699	8,169				

* 출처 : 과테말라통계청(Instituto Nacional de Estadistica)

- 주요 수입품목은 에너지(석유·석탄·가스), 자동차 및 운송수단 및 플라스틱·봉제 관련 원부자재에 집중되어 있으며, 봉제 부자재는 꾸준히 감소세

<최근 3년간 과테말라의 10대 수입품목>

순위	품목 (HS)	년도별 수입액(백만U\$)			비중(%)			증감률 (19/18,%)
		2017	2018	2019.5	2017	2018	2019.5	
1	석유화학제품(2710)	2,148	2,474	1,108	11.68	12.56	13.56	3.43
2	휴대전화(8517)	627	627	270	3.41	3.18	3.31	22.54
3	승용차(8703)	573	568	224	3.12	2.88	2.74	-6.31
4	의약품(3004)	503	527	214	2.74	2.67	2.62	3.41
5	화물차(8704)	353	371	154	1.92	1.88	1.88	-0.05
6	석유가스(2711)	333	364	132	1.81	1.85	1.62	-16.81
7	석탄(2701)	186	259	115	1.01	1.31	1.41	30.48
8	판지(4804)	241	281	113	1.31	1.43	1.38	-3.41
9	옥수수(1005)	214	236	111	1.16	1.20	1.36	25.97
10	조제식품(2106)	213	244	106	1.16	1.24	1.30	7.52
계		18,388	19,699	8,169				

* 출처 : 과테말라통계청(Instituto Nacional de Estadistica)

- 과테말라 수출국은 DR-CAFTA에 힘입어 미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35.7%), 이어 중미 역내시장(31.5%), 멕시코(4.7%) 등 인근시장에 집중
- 반면 한국(0.64%)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로의 수출량은 아주 미미한 수준에 불과
- 수출 품목은 농산물과 의복류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5대 상위품목 모두 농산물이 차지. 한편 주력 수출 품목이었던 의복류는 가격경쟁력 등에서 밀리면서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모습도 관찰

<최근 3년간 과테말라의 국별 수출규모>

순위	국 가	년도별 수출액(백만U\$)			비중(%)			증감률 (19/18,%)
		2017	2018	2019.5	2017	2018	2019.5	
1	미 국	3,716	3,847	1,598	33.80	35.72	33.93	-5.26
2	엘살바도르	1,217	1,335	545	11.07	12.40	11.58	2.75
3	온두라스	967	847	398	8.80	7.87	8.46	15.20
4	니카라과	562	541	213	5.11	5.02	4.51	-11.52
5	멕시코	510	507	170	4.64	4.71	3.61	-18.25
6	코스타리카	423	429	169	3.85	3.99	3.58	-1.01
7	네덜란드	361	357	132	3.28	3.32	2.80	0.20
8	캐나다	228	164	102	2.08	1.52	2.16	14.43
9	이탈리아	155	148	101	1.41	1.37	2.15	49.42
10	사우디	111	125	98	1.01	1.16	2.09	113.74
28	대한민국	99	69	20	0.90	0.64	0.42	-44.70
총계		10,993	10,769	4,710				

* 출처 : 과테말라통계청(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

<최근 3년간 과테말라의 10대 수출품목>

순위	품목 (HS)	년도별 수출액(백만U\$)			비중(%)			증감률 (19/18,%)
		2017	2018	2019.5	2017	2018	2019.5	
1	바나나(0803)	875	896	407	7.96	8.32	8.64	13.77
2	커피(0901)	749	681	365	6.81	6.32	7.75	-3.95
3	육두구, 메이스, 소두구(0908)	367	434	307	3.34	4.03	6.51	50.86
4	사탕수수당 등(1701)	826	633	300	7.52	5.88	6.37	-21.73
5	저지, 폴오버 등 편물 (6110)	222	298	138	2.02	2.77	2.93	39.81
6	팜유(1511)	447	448	121	4.07	4.16	2.58	-15.78
7	합금철(7202)	121	153	116	1.10	1.42	2.46	56.27
8	남성용 상의(6105)	242	312	111	2.20	2.90	2.36	-14.06
9	여성용 상의(6106)	314	288	107	2.85	2.67	2.27	-18.74
10	멜론, 파파야(0807)	183	189	104	1.67	1.76	2.20	-19.06
계		10,993	10,769	4,710				

* 출처 : 과테말라통계청(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



Ⅲ. 한국과의 교역동향

□ 한국의 대과테말라 교역동향

- 과테말라의 대한수입액은 '19년 5월 기준, 전년 대비 감소세(-4.85%)를 보이고 있음. 이는 주력 수입 품목인 편직물(6006)의 수입 감소에 기인함

<최근 4년간 한국-과테말라 간 교역 현황>

구 분	2016	2017	2018	2019.5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한국→과테말라(천U\$, CIF기준)	321,270	306,199	291,198	119,627	-4.85
과테말라→한국(천U\$, FOB기준)	123,097	98,577	69,055	19,946	-44.70

* 자료원 : 과테말라통계청(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 '19. 8)

-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자동차, 봉제부자재(면사·합성섬유·염료), 기계류 등 내구재와 산업재에 집중
 - 자동차, 가전 등 전통적 강세품목의 한국산 선호도는 꾸준하나, 중국·멕시코 등 경쟁국의 시장점유율도 지속 증가
- 승용차의 경우, 매년 수입물량은 18~19만대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으나 신차와 중고차 별로 주요 수입국가가 변하는 양상을 보여줌. 이는 글로벌 메이커들이 아시아 및 중남미에서 생산공장을 다변화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임
 - 가장 최근 발표 자료 기준('18.3) 신차 시장은 도요타의 시장점유율이 37%로 압도적이며 마즈다(9.93%), 혼다(7.48%), 닛산(6.99%), 미츠비시(5.41%), 그리고 현대(3.9%)가 그 뒤를 잇고 있음
- 이밖에는 편직물(HS 6006)을 제외한 원부자재, 철강(형강, 평판압연제품), 섬유 기계류 등이 증가세를 보였으며, 소비재 중에는 음료(HS 2202) 수입액이 최근 몇 년간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모습임



<과테말라의 대한민국 수입품목(상위 15개 품목)>

순위	품목 (HS)	년도별 수출액(천US\$)			비중(%)			증감률 (19/18,%)
		2017	2018	2019.5	2017	2018	2019.5	
1	승용차(8703)	47,511	34,300	14,663	15.52	11.78	12.26	8.69
2	편직물(6006)	26,055	27,677	8,983	8.51	9.50	7.51	-27.10
3	화물차(8704)	16,040	18,019	8,254	5.24	6.19	6.90	7.82
4	승합차(8702)	12,708	13,513	7,591	4.15	4.64	6.35	45.57
5	합성유기착색제(3204)	8,531	12,747	5,123	2.79	4.38	4.28	12.68
6	섬유기계류(8451)	9,556	4,964	3,267	3.12	1.70	2.73	157.96
7	600mm 이상 평판압연제품(7225)	8,951	0	3,056	2.92	0	2.55	N/A
8	음료(2202)	5,706	5,737	3,054	1.86	1.97	2.55	45.35
9	축전지(8507)	4,371	6,743	3,014	1.43	2.32	2.52	1.74
10	건설중장비(8429)	4,299	6,946	2,923	1.40	2.39	2.44	24.87
11	화장지(4803)	0.358	429	2,447	0	0.15	2.05	N/A
12	시멘트류(2523)	0	1,481	2,180	0	0.51	1.82	N/A
13	프로필렌중합체(3902)	4,030	6,622	2,045	1.32	2.27	1.71	21.57
14	섬유가공첨가물(3809)	4,381	4,387	1,993	1.43	1.51	1.67	41.01
15	에틸렌중합체(3901)	4,935	4,600	1,877	1.61	1.58	1.57	-12.27
계		306,199	291,198	119,626				

<과테말라의 대한민국 수출품목(상위 10개 품목)>

순위	품목 (HS)	년도별 수입액(천US\$)			비중(%)			증감률 (19/18,%)
		2017	2018	2019.5	2017	2018	2019.5	
1	커피(0901)	23,379	23,792	9,293	23.72	34.45	46.59	-17.15
2	바나나(0803)	10,530	10,060	4,389	10.68	14.57	22.00	14.35
3	일차전지축전지웨이스트 &스크랩(8548)	4,530	7,447	2,665	4.60	10.78	13.36	-21.60
4	알루미늄 웨이스트와 스크랩(7602)	4,628	2,714	1,057	4.69	3.93	5.30	-15.91
5	종이류(4819)	1,013	1,201	595	1.03	1.74	2.99	42.78
6	구리 웨이스트와 스크랩(7404)	120	475	437	0.12	0.69	2.19	N/A
7	남성 소년용 셔츠(6105)	294	593	412	0.30	0.86	2.07	93.85
8	냉동채소(0710)	225	522	251	0.23	0.76	1.26	44.68
9	티셔츠(6109)	0.1	9	157	0	0.01	0.79	N/A
10	잎담배와 부산물(2401)	0	121	121	0	0.17	0.60	N/A
계		44,719	46,934	19,946				

* 출처 : 과테말라통계청(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



□ 한국의 대과테말라 투자현황

- 봉제업종과 관련된 중·소규모 임가공업체가 주종을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기업 중에는 삼성전자, LG전자 등이 지사를 설립, 운영 중
- 과테말라 섬유산업협회(VESTEX)에 따르면 봉제, 부자재, 방직·편직·직조, 무역 등 총 120여개의 한국기업이 회원사로 등록, 활동 중임
- 수출입은행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대과테말라 직접투자 신고건수는 '89년 37건, '00년 16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업종별로는 제조업(의복, 섬유제품)이 대부분을 차지(법인수 84%, 투자금액 82%)

<한국의 대과테말라 투자현황('80-'19년 누계) 단위: 천불>

업종	중분류	소분류	산규법인수	신고금액	투자금액
제조업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56	146,731	87,905
		셔츠 및 블라우스	1		3,300
		여자용 겹옷	2	1	1
		편조의복	2	10,515	7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화학섬유직물 직조업	10	36,083	15,037
		직물, 편조원단 및 의복류 염색 가공업	1	3,006	2,856
		편조원단 제조업	2	255	100
		날염 가공업	1	501	46
		기타 직물제품	1	13	13
		기타 분류 안된 섬유제품	0	1	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의약품 제외		3	1,590	1,306
	기타 제품		2	2,050	1,20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2	372	346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1	500	155	
건설업			3	32,116	20,218
부동산업			1	1,200	1,051
숙박 및 음식점업			2	332	23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	20	8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0	301	0
총 합계			91	238,887	134,493

*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19.7월)



IV. 현지 체류정보

1. 입국 요령

□ 공항 관련 일반정보

- 과테말라시티 관문인 라아우로라(La Aurora) 국제공항은 '07년 리모델링을 거쳐 시설이 비교적 깨끗하고, 취항 항공편이 많지 않아 특정 시간대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한산한 편. 따라서 출입국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으며 수화물 처리도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입국 심사

- 한-과테말라 비자면제협정에 따라 한국인은 90일간 무비자 입국 및 체류가 가능하며, 1회에 한해 90일 연장 가능
 - 비자 연장은 과테말라시티 Zona4에 위치한 이민국(Direccion General de Migracion)에 방문하여 당일 조치 가능
- 기내에서 배포하는 입국신고서 중 1부(흰색)는 입국 심사 시에, 다른 1부(노란색)는 세관 검사 시 회수하므로, 마지막 세관 통과까지 소지 필요
- 특히, 짐표(Luggage Tag)는 수화물 도난 예방조치로 공항직원이 육안 확인 후 통과시키는 경우도 있음

□ 세관 검사

- 전반적으로 세관심사가 까다로운 편은 아니나 짐이 많거나 박스포장의 경우 전수검사를 실시하기도 하며 최근에는 입국자가 직접 버튼을 눌러 녹색등은 면제, 적색 점등시 엑스레이 검사하는 무작위 선별 형태로 세관 시스템 변경



- 특히 'La Linea 스캔들'*의 여파로 세관검사를 엄격하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지참물 종류와 수량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 세관원이 내용물과 세관신고서 작성내용을 직접 대조하고 오류 발견 시 벌금을 물리거나 과세하기도 하므로 신고서 작성 시 주의를 요함
 - * 비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세관 비리를 일으키면서 오토 빼레스(Otto Perez) 前대통령이 탄핵된 사건
- 이를 대비하여 샘플은 반드시 인보이스와 함께 해당상품에 어떠한 형태로든 'Sample(서어 : Muestra)'임을 표기하는 것이 좋음

□ 1만 US\$ 이상 고액현금 소지 관련

- 합계금액 1만US\$ 이상의 현금과 유가증권(여행자수표, 상품권 등 포함) 지참 상태로 입출국 시 반드시 세관 당국에 신고해야 함
 - 과테말라는 미신고 고액현금 휴대를 자금세탁 범죄로 간주하며, 자금세탁 범죄는 주재국에서 상당히 무거운 죄에 해당
 - 향후 무죄판결이 나더라도 체포는 물론 향후 수사와 공판 진행으로 인한 출국 금지, 보석금 납부, 변호사 선임 등 상당한 불편이 초래될 수 있음

□ 공항 입국장(대합실)

- 세관 검사장을 지나면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 홀이 나오며, 이곳에 공항택시, 렌터카 부스 등이 위치
- 입국장 출구를 나서면 바로 주차장과 연결되며 잡상인이 많은 관계로 차량 또는 사전에 약속된 안내인이 확인될 때 까지 주의하는 것이 바람직



2. 날씨 및 복장

□ 현지 날씨

- 과테말라시티는 해발 1,500m 고원에 위치해 있어 연평균 20 ~ 22℃ 내외의 상춘기후 유지(한국의 5월 기후와 유사)
 - 반면, 저지대 또는 해안가는 연중 내내 뜨겁고 무더운 열대성 기후
- 계절로는 크게 건기(12~4월)와 우기(5~11월)로 구분되며 통상 건기가 쾌적
 - 건기의 끝자락인 3~4월의 기온이 가장 높고(섭씨 30℃내외 까지도 상승) 우기로 들어서면서 다시 선선해지는 기후 특성을 보임

<2018년 과테말라시티(Aurora측정소) 기온 및 강수량 추이>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최저기온(℃)	13.6	15.1	15.6	17.3	18.8	17.0	16.8	16.4	16.9	16.1	14.4	13.7
최고기온(℃)	23.1	24.1	24.1	27.0	24.9	25.2	25.7	25.8	25.6	24.2	23.9	23.3
평균기온(℃)	18.6	20.4	20.1	22.1	21.6	20.6	21.3	19.7	20.7	19.5	19.1	18.2
강수량(mm)	2	12	3	7	293	235	103	212	237	65	0	0

* 출처 : INSIVUMEH(Instituto Nacional de Sismologia Vulcanologia Meteorologia e Hidrologia)

□ 복장

- 계절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하복 또는 얇은 춘추복 위주로 준비하면 무난
 - 단, 해안가 또는 저지대 방문계획이 있는 경우, 시기에 상관없이 여름옷을, 1~2월 방문 시에는 저녁이 몹시 쌀쌀해지기도 하므로 늦가을용 외투 지참
 - * 단, 저지대는 지카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있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복장이 안전

3. 결제수단 및 환전

□ 결제수단

- (화폐) 미화는 외국인을 주로 상대하는 호텔, 관광업종에 제한적으로 사용되므로, 소액이라도 현지 화폐를 보유하는 것이 좋음



- (신용카드) 대개의 상점에서 VISA, MASTER, American Express 등 주요 카드로 결제 가능
- 단, 일시적인 통신장애로 카드결제가 안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 편

□ 환전

- 공항 내 환전소는 적용환율이 매우 불리하며, 따라서 호텔 데스크 또는 숙소 인근 은행에서 환전하는 것이 훨씬 유리(환전 시 신분증(여권) 지참 필수)
- * BI은행 현지화(깨찰 또는 Quetzal) 매수환율('19. 7월) : 1 US\$ = 7.6 Quetzal

4. 기타 유의 및 참고사항

□ 교통편

- (일반) 대중교통체계가 낙후되어있고 버스는 각종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바, 가까운 거리라도 택시 이용이 바람직
- 단, 택시강도가 성행하므로 거리에서의 일반택시 탑승은 매우 위험하고 필히 콜택시, 호텔택시 또는 우버('16년 12월 서비스 개시) 이용
- * (콜택시업체) Amarillo Express(+502-2470-1515), Verde Express(+502-2475-9595)
- (공항) 대개의 호텔에서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므로 공항↔호텔 간 이동 시에는 이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
- 그렇지 않은 경우 공항에 정식 등록된 조합택시(AirporTaxi)를 이용하는 것이 좋으며, 택시부스는 세관 통관 후 입국장 출구 우측에 위치
- 택시부스에서 목적지를 알려주면 금액이 기재된 티켓을 발급하며, 입국장 출구 정면에 대기 중인 흰색택시 기사에게 이를 전달하고 탑승
- * (요금) Zona 10(호텔존) 70계찰 전후, Zona 7(한인타운 인근) 100-120계찰 전후(미화는 택시부스에서 선결제하거나 탑승 전 택시기사와 상의 필요)
- 밤늦게 도착하는 경우에는 부스 상주직원이 없는 관계로 입국장에 대기 중인 공항택시에 바로 탑승



□ 치안

- 치안이 매우 불안하고 도심에서도 주야를 가리지 않고 절도·도난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야간 단독외출 뿐 아니라 도심에서의 주간 단독보행 또한 금하는 것이 좋음
 - * (사례) 시민의 왕래가 빈번한 오전 11시경 한인여대생이 Zona10 번화가를 보행하던 중, 이면주차 차량에서 권총강도 2명이 하차, 현금·휴대폰 등을 강탈·도주
- 차량 이동의 경우에도 신호대기 또는 교통정체 중일 때가 가장 취약한데, 다인조 오토바이 강도가 차량 양옆으로 접근하여 총기 협박 후 갈취하는 방식이 일반적
- 따라서, 외출 시 과도한 현금이나 고급시계, 귀중품은 휴대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차량 내부에 있더라도 휴대전화가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함
- 특히 총기 소지 및 이로 인한 사고가 일상화되어 있는 만큼, 어떠한 경우라도 강도의 요구에 절대 순응하고 반항하지 않아야 함

□ 자연재해

- 과테말라시티 주변에 활화산 3개가 있고 크고 작은 분출이 수시로 발생
 - (사례1) 에스핀틀라(Esquitla)주에 위치한 빠까야(Pacaya) 화산*이 '10년 5월 27일 크게 폭발, 화산재가 상공을 뒤덮으면서 La Aurora 국제공항이 5일간 폐쇄
 - * 과테말라시티에서 직선거리로 남남서 방향 약 30km 거리에 위치
 - (사례2) 사까떼삐께스(Sacatepequez)주 안티구아(Antigua)시에 인접한 후에고(Fuego) 화산*이 '18년 6월 3일 크게 폭발, 쇄설류가 아랫마을을 덮쳐 최소 100명 이상이 사망하였고 시티로 화산재가 확산되면서 La Aurora 국제공항 일시 폐쇄(당일 오후부터 익일 오전까지 유지)
 - * 과테말라시티에서 직선거리로 남서서 방향 약 40km 거리에 위치
- 또한 남서연안을 따라 카리브판과 코코스판이 만나는 단층대가 가로지르고 있어 크고 작은 지진이 수시로 발생하며, 수도에서도 대다수의 주민이 인지할 정도의 흔들림이 자주 관찰



- 자연재해로 갑자기 공항이 폐쇄되어 항공편 운항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항공사들은 취소에 따른 변상이나 숙소 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만큼, 출장 시 비상금이나 숙옷 등을 여유 있게 챙기는 것이 좋음
- 상황 발생 시 현지에서는 대체항공편 검색, 재발권이 매우 어려워지는바, 만약을 대비하여 24시간 대응이 수월한 여행사를 통해 발권하는 것이 안전
- * 취항 항공사 대부분 예약 변경 접수가 콜센터로 일원화되어 있어 전화 폭증 시 신속한 대응이 잘 안 되는 편

□ 위생

- 수도물은 지하수 취수가 일반적이며, 정수설비 불량 및 도심 난개발로 수질 오염 우려가 있음. 특히 아메바 등 세균 오염, 석회질 함유 등의 이유로 음용에 부적합하며, 구강세척 및 양치를 하는 경우에도 병입 생수를 이용하는 것이 좋음
- 대중음식점에서도 식당에서 제공하는 물보다는 병입 생수를 마시는 것이 바람직

□ 팁문화

- (식당) 관례적으로 총 금액의 10% 내외를 지불하며, 통상적으로 계산서에 이를 포함하여 청구하기도 하므로 확인 필요(명세서에 Propina로 표기)
- (호텔) 방청소 및 벨보이(포터) 팁은 1US\$ 또는 현지화 10개찰 내외가 적당

□ 무역관 오시는 길(Google 좌표 14.599035, -90.513176)

- 무역관은 Zona 10(제 10구역) 중심가에 위치한 ATLANTIS빌딩 6층에 입주해 있으며, WorldBank, 베네수엘라대사관, Maersk 등 주요기관, 기업들도 위치
- 공항에서 출발할 경우 택시로 15-20분 소요되며, 공항택시(AirporTaxi) 기준 요금은 현지화 70개찰 수준(정액제)
- 주요 호텔*들이 무역관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만큼 근처에 체류하는 경우 도보 방문도 가능하나, 보행은 주야를 가리지 않고 가급적 삼가는 것이 안전
- * (1블럭) Real Intercontinental, Clarion Suite / (2-3블럭) Westin Camino Real, Holiday Inn 등



□ 기타

- (시간대) UTC - 6:00 중앙아메리카 시간대에 편입되어 있고 일광절약시간제는 운영하지 않으며, 한국보다 15시간 늦음
 - * (예시) 한국 오전 9시 = 과테말라 전날 오후 6시

- (근무시간) 일반적으로 오전 8시 ~ 오후 5시가 보편적이거나 기업에 따라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
 - 관공서는 오전 8시 ~ 오후 4시 또는 오전 9 ~ 오후 5시, 은행은 지점에 따라 운영시간*이 조금씩 차이가 있음
 - * Banco Industrial Fontabella지점 월-토 10:00 - 19:00 / Europlaza지점 월-금 09:00-18:00

- (전압) 이용전압은 110V·60Hz이며, 플러그는 A 또는 B형이 보급되어 있어 11자형 변환어댑터를 지참하는 것이 좋음
 - 현지 호텔에도 일정량을 비치해두고 있으나, 한국의 F형(220V용) 보다 구경이 작은 C형용 어댑터여서 삽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음

□ 공휴일(2020년 기준)

날 짜	공휴일	날 짜	공휴일
1월 1일(수)	신 년	9월 15일(화)	독립기념일
4월 19일(일)~4월 22일(수)	부활절(매년 변경)	10월 20일(화)	혁명기념일(1944년)
5월 1일(금)	노동절	11월 1일(일)	만성절(한식)
6월 30일(화)	국군의 날	12월 25일(금)	성탄절
8월 15일(토)	성모승천일(과테말라시만)		



5. 주요 연락처

☐ 항공사·여행사

구 분	업체명	연락처	업체명	연락처
항공사	UNITED	(TEL) +502-2336-9900	AVIANCA	(TEL) +502-2470-8222
	DELTA	(TEL) +1-800-300-0005	COPA	(TEL) +502-2307-6400
	AMERICAN	(TEL) +502-2331-7458	AEROMEXICO	(TEL) +1-800-835-0269
한 인 여행사	제트여행사	(TEL) +502-2383-4324 / (Email) taeshim62@hotmail.com		
	샬롬여행사	(TEL) +502-2439-7706 / (Email) shalomlingua@hanmail.net		

☐ 렌터카·콜택시

구 분	업체명	연락처
렌터카	HERTZ	(TEL) +502-2314-4444 (URL) www.rentautos.com.gt (특징) 공항 및 WESTIN호텔에 상주 사무소를 두고 있어 임차, 반납 등 이용 편리
	AVIS	(TEL) +502-2324-9000 (URL) www.avis.com.gt (특징) 공항 및 과테말라시티 중심가에 3개소가 있으며, Zero Deductible 등 폭넓은 옵션 제공
	스마일렌터카	(TEL) +502-2432-2468 / 4250-1803 (특징) 교포 운영 렌터카업체(중고차매매 겸업)
	현대렌터카	(TEL) +502-5353-1508 (특징) 교포 운영 렌터카업체(중고차매매 겸업)
콜택시	TAXI AMARILLO EXPRESS	(TEL) +502-2470-1515 (URL) www.amarilloexpress.com (요금) 4.8계찰/km, 정차 시 33초 단위로 0.8계찰 가산(최저요금 : 현찰-25계찰, 카드-35계찰) (장거리요금) 안티구아 250계찰, 빨린 200계찰 등 (특징) 과테말라 최대 규모 콜택시기업(자회사로 Verde Express社 보유)



□ 비상연락망

○ 과테말라무역관

- (주소) 13Calle 3-40, Zona 10, Edificio Atlantis, Oficina 605, Guatemala
- (TEL) +502-2298-0000

직 위	성 명	이메일
관 장	안 성 희	sh_ahn@kotra.or.kr
-	Michel Boileau(미셸 부알루)	michel@kotra.or.kr

○ 주과테말라 대한민국대사관

- (주소) 5Avenida 5-55, Zona14, Edificio Europlaza, Torre3, Nivel7, Guatemala
- (TEL) +502-2382-4051 ~ 5 | (FAX) +502-2382-4057 ~ 8

○ 사건·사고 관련 주요 연락처

구 분	전화번호	구 분	전화번호
경찰청(범죄신고) Policia Nacional Civil	110 또는 120	앰블런스(의용) Bomberos Voluntarios	122
교통경찰(PMT) Policia Municipal de Transito	1551	앰블런스(국영) Bomberos IGSS	128
관광경찰 Policia de Turismo	+502-2361-6052	앰블런스(시영) Bomberos Municipales	123
Roosevelt병원(국립)	+502-2321-7400	앰블런스(민간) Alerta Medica	1711
Centro Medico병원(사립)	+502-2279-4949	앰블런스(적십자) Cruz Roja	125

○ 한인 운영 클리닉

구 분	업체명	연락처
가정의학과	박상민클리닉	(주소) 36 Avenida 1-74, Centro Comercial Mateo Xpress Local 7, Zona 7 (TEL) +502-2439-8225 (운영시간) 월-금 09:30-18:30 / 토 09:30-14:00
	세브란스클리닉	(주소) 32Av. 1-34, Utatlan, Zona 7(농원식품 2층, 샬롬여행사 옆) (TEL) +502-2233-7234 (운영시간) 월-금 10:00-19:00 / 토 09:00-15:00
치 과	미소치과	(주소) 32 Avenida 1-36, Utatlan1, Zona 7 (TEL) +502-2439-5445 (운영시간) 월-금 09:00-17:30 / 토 09:00-15:00



□ 주요식당

종류	상호명	연락처	비 고
한식	유명한집	(주소) 1 Calle 35-09, Zona 7 (TEL) +502-4625-8280	탕요리 전문
	한국관	(주소) 2 Calle 33-14, Zona 7, Calzada Mateo Flores (TEL) +502-2439-5927	숯불갈비 전문
	향 이	(주소) 2 Calle 33-40, Zona 7, Calz. Meteo Flores (TEL) +502-2439-5594	한 식
	중국성	(주소) 36 Avenida 1-59, Zona 7 (TEL) +502-2439-6750	한국식 중식 (매주 화 휴무)
	고려정	(주소) 4 Avenida 12-63, Zona 9 (TEL) +502-2361-4320	활어회 전문
	명 동	(주소) 11 Calle 5-08, Zona 9 (TEL) +502-2441-5266	한식·중식 및 숯불갈비 전문
	순 풍	(주소) 32 Avenida 1-34, Zona 7 (TEL) +502-2439-3186	순대국 전문
중식	Lai Lai	(주소) 12 Calle 5-27, Zona 9 (TEL) +502-2361-6858	정통 중국식
	Mongolia	(주소) Avenida Las Americas 2-50, Zona 13 (TEL) +502-2334-5589	징기스칸식
현지식	Hacienda Real	(주소) 5 Avenida 14-67, Zona 10 (TEL) +502-2380-8383	과테말라식 숯불구이 전문
	Donde Mikel	(주소) 6 Avenida 13-32, Zona 10 (TEL) +502-2363-3308	스페인식
	Palermo	(주소) 4 Avenida y 12 Calle, Plaza Fontabella, Zona 10 (TEL) +502-2336-7129	아르헨티나식 아사도 전문

6. 유용한 현지표현

- 안녕하세요?(아침인사) - Buenos dias(부에노스 디아스)
- 안녕하세요?(점심인사) - Buenas tardes(부에나스 따르데스)
- 안녕하세요?(저녁인사) - Buenas noches (부에나스 노체스)
- 감사합니다. - Gracias (그라시아스)
- 실례합니다. - Con permiso (콘 페르미소)
- 계산서 주세요. - La cuenta, por favor (라 꾸엔따, 뽀르 파보르)
- 물 좀 주세요. - Agua, por favor (아구아, 뽀르 파보르)
- 얼마입니까? - Cuanto cuesta? (꾸안또 꾸에스타?)
- 메뉴 주세요 - La carta, por favor (라 까르따, 뽀르 파보르)



7. 주요 관광지

1. 안티구아(Antigua)



- 1543년 스페인 침략기에 건설된 옛수도로, 1773년 대 지진으로 파괴되면서 현재의 과테말라시티로 이전
- 성당 등 주요 건축물들이 중세양식을 잘 보존하고 있어 1979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 제1의 관광지로 자리매김
- 과테말라시티에서 1시간 거리에 위치

2. 아띠플란호수(Lago de Atitlán)



- 과테말라시티에서 147km, 해발 1,562m에 위치한 칼데라호
- 3,000m 이상의 화산들로 둘러싸여 있으며, 체게바라가 풍경에 반해 혁명을 잇고 머물렀다 하여 유명세를 탄 곳
- 특히 호수 주변 부락을 배로 이동하며 인디오들의 다양한 생활상을 엿볼 수 있음

3. 띠칼(Tikal)



- 과테말라 북쪽 페텐(Peten)주에 위치한 마야유적지로 1979년 유네스코 문화유산 지정
- 유적지는 3천여 개가 넘는 크고 작은 건조물로 구성
- 버스로는 12-14시간, 항공편으로는 1시간 소요

4. 빠까야화산(Volcan de Pacaya)



- 해발 2,562m의 활화산으로, 경우에 따라 흐르는 용암을 근거리에서 관찰할 수 있는 곳
- 등반에는 2시간 정도 소요되며 말을 타고 등산도 가능
- 과테말라시티에서 2시간 거리에 위치

5. 리오둘세(Río Dulce)



- 과테말라 북쪽 이사발(Izabal) 호수 인근에 위치, 천혜의 원시림과 자연풍경을 간직한 관광명소
- 이사발호수, 산펠리페성, 흑인정착촌인 리빙스톤 등이 주변의 주요 관광지임



V. 상담시 참고사항

□ 과테말라 상거래 참고사항

1) 상담/계약 체결 시

- 제조업이 GDP의 18%를 차지하나 섬유봉제업, 플라스틱제조, 식품가공업 등에 편중되어 있고, 따라서 기타 소비재, 자본재, 원부자재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임. 다만, 수입상들은 비즈니스 초기단계에서 시장조사, 소비자 기호 파악 등을 위한 소량구매가 일반적인 만큼, 처음에는 바이어가 원하는 소량 오더를 수용하되, 향후 설득을 통해 거래량을 키워가겠다는 자세가 바람직
- 과테말라의 많은 업체는 금융비용 및 복잡한 절차 등으로 L/C 개설을 회피하며 T/T 거래를 선호(선금 30%, 선적 후 70% 등). 이 경우, T/T 송금 후 수출업체는 수입업체에 Commercial Invoice, B/L, Packing list 등의 서류를 보내야 하며, L/C 거래 시 과테말라 은행의 대외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미국 소재 외국은행을 통한 CONFIRMED L/C 개설이 안전
- 중미지역에서 가장 경제규모가 큰 과테말라의 많은 수입업체는 인근 중미국에도 판매장이나 거래선을 두고 있으며, 과테말라에서 시장성이 있는 제품은 인근 국가로 확산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과테말라를 기점으로 온두라스, 니카라과 등 중미시장을 점진적으로 공략한다는 자세가 필요
 - 다만, 과테말라 바이어들은 과거 스페인 독립 직후 중미연방의 수도였던 관계로 중미지역의 만형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존중해 주는 것이 필요.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등 인접 국가와는 심적으로 가까이 지내나 멕시코, 코스타리카, 파나마 등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감정이 있는 경우가 있음



- 과테말라는 전체인구의 53.7%가 빈곤층(극빈층 11.5%)으로 구성, 중산층이 취약하고 소득불균형에 따른 소비구조 양극화가 특징임. 이에 소수의 상류층과 다수의 서민층을 따로 공략하는 전략이 필요함. 다만, 상류층의 경우도 한국 입장에서 당연하게 생각되는 친환경, 고품질 추구 등의 가치에 크게 비중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아 품목별로 현지 소비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수
- 과테말라는 전체 인구의 40%가 마야 후손 원주민(인디오)이며, 혼혈(라디노), 백인 등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면적으로는 인종 간 갈등이 표출되지 않지만, 인디오에 대한 차별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었기 때문에 인종에 대한 질문 혹은 코멘트(‘당신이 (순수) 백인이냐, 혼혈이냐, 인디오냐, 마야인이냐’ ‘과테말라의 인종구성은 어떻게 되느냐’ 등)는 삼가야 함

2) 상담 이후 후속조치 시

- 과테말라 수입상들은 상담 약속이나 거래 추진을 원치 않을 경우 직접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보다는 약속시간을 변경하거나 혹은 “나중에 보자”, “담당자가 없다”는 등으로 간접적으로 회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바이어의 진의를 현명하게 판단하는 것이 필요
- 중미지역 기업들은 가족 경영을 하는 경우가 많고 오너 또는 의사 결정권자 집단과 실무자 집단 간 의사소통이 사실상 단절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임. 또한 대부분의 의사 결정이 오너에 집중되어 있으나 이들이 휴가 또는 출장으로 자리에 없는 시간이 많아 즉시 응답을 하지 못하거나 실무자가 이를 전달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임
- 과테말라 바이어들은 이메일 또는 전화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상대적으로 희박하기 때문에 본인이 급하지 않으면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종종 생김. 이에, 사절단 이후 교신 시에는 무역관 담당자를 참조 하여 무역관 직원이 별도로 접촉하여 수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권장



www.kotra.or.kr